

연구논문

분할함수 성장모형으로 살펴본 초기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의 발달 및 시점별 학교생활 적응 효과

안소영* · 신현우** · 이청아*** · 홍세희****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의 변화 양상이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 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초4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동체 의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잠재성장모형의 확장 형태인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통제변수도 함께 포함하여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초등학교 시기의 공동체 의식은 약간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중학교 시기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학교급에 따라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이 각 시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 적응의 네 하위 요인 모두 동일 시점의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연효과의 경우, 다른 시기에 비해 초등학교 6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이 중학교 1학년 때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적용하여, 공동체 의식의 변화 양상이 학교급별로 동일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으며,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생활 경험이 중학교 시기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공동체 의식 교육방향과 교육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공동체 의식, 학교생활 적응, 분할함수 성장모형, 시간의존 변수, 지연효과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측정 및 통계 석사과정(star6346@naver.com).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측정 및 통계 석사과정(claweye@korea.ac.kr).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측정 및 통계 석사과정(cheongah.lee89@gmail.com).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scheehong@korea.ac.kr), 교신저자.

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함께 일어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에 이르는 초기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에 관해 고민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성장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학교생활을 통해 또래 및 교사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와 국가에 관한 인식을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최근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6대 핵심 역량 중 하나로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 공동체 역량에 있어서 공동체 의식은 기본 요소인데(이상수·김은정 2016a),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정체성 형성 및 확립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며(김진숙·안재진 2012), 다문화수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서봉연 외 2015),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위유라·노충래 2014). 이에 따라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신건강이나 다문화사회의 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은 다층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여러 요소와 지속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획득하고 형성하며, 학습한다(이혜영 1993).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의 공동체 의식은 주요 발달환경 중 하나인 학교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Lerner & Castellino 2002), 공동체 의식을 학교교육에서의 비인지적 학습 결과 중 하나로 보는 선행연구 또한 존재한다(곽수란 2017). 따라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의 발달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발달환경인 학교에서의 경험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학교적응 및 또래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 학교생활 등 학교 관련 요인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설명하였다(김상미·남진열 2011; 김위정 2012; 구지윤·김유나 2016).

그런데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관련 선행연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보인다. 첫째, 공동체 의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횡단적 분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박현정 외(2015)도 지적하였듯이, 청소년기는 시간에 따른 심리적 변화가 급격하고, 무엇보다도 발달환경이나 교육과정에 따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종단 연구가 필수적이다. 몇몇 연구에서는 종단분석을 진행한 경우가 있으나(박영·허원구 2017; 박혜숙 2019; 오민아·조혜영 2017), 이 연구들은 주로 공동체 의식에 대한 하나의 선형적인 변화궤적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초기 청소년기는 초·중 전환기로서 이 시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겪는 학교생활의 양상이 뚜렷하게 달라 이에 공동체 의식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학교급별로 구분되는 종단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목표가 다르므로, 따라서 공동체 의식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09 및 2015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배양하고 개인의 인성 등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때 형성한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다원적 가치를 수용하고, 공동체 의식 등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09; 교육부 2015). 교육과정의 중점 목표는 실제로 교과과정 및 교육방법의 차이, 특히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 등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의 차이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교육과정의 차이가 실제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종단적으로 공동체 의식의 발달과정을 관찰하였을 때 학교급에 따라 변화 양상이 뚜렷이 구분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성과를 확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다.

둘째,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 적응 요인의 경우, 학교를 구성하는 여러 사회적 요소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시간 의존적 특성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의 시간 의존적 특성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단일 시점에서의 영향만을 탐구하였다(구지윤·김유나 2016; 김상미·남진열 2011; 박경호·박희진 2016; 박영·허원구 2017; 박혜숙 2019; 양심영 2018). 학교생활 적응의 수준은 매년마다 달라지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에 대한 그 영향력도 시점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학교생활 적응 경험은 연속적인 특성으로

인해 현재의 공동체 의식 수준에 영향, 즉 지연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초기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의 변화 양상이 실제로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생활 적응(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 요인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 또 동시효과와 지연효과가 있는지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기 청소년기의 학교급 전환기에 걸친 공동체 의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초기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적응(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은 종단적으로 공동체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공동체(community)는 특정 공간 및 경계 속에서 가치관과 생활권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구성원 간의 사회적 결속과 유대감 등의 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Maclver 1970).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은 이웃, 마을, 도시 등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Gusfield 1975), 소속감, 서로에 관한 영향력, 통합과 수요의 충족, 공유된 정서적 결속 등의 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로 묘사된다(Mcmillan & Chavis 1986). 이러한 개념들은 공통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단순히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 관계적 맥락이 있으며(Sarason 1974; McMillan & Chavis 1986) 집단을 결속하고 유대감이 생기도록 하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들도 사회적 유대감을 강조하여 공동체 의식을 정의하였다. 초기 연구인 이해영(1993)은 ‘어떤 집단에 속한 개체 성원이 집단에서 찾는 자기 동일성과 다른 구성원과의 연대체험을 통한 집단의식’이라고 지칭하였다. 김광복·남진(2005)은 ‘일정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인간 상호작용의 특성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구성

하는 요소는 구성원의식,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연대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성희자·전보경(2006)은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유지하며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심리 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동체 의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활환경 속에서 개체 성원이 성장하면서 형성되고, 획득되며 학습된다(이혜영 1993). 본격적으로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청소년기에 청소년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태도를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한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외부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외부체계의 규범을 습득하고 자신의 행동양식을 조정한다(Bronfenbrenner 1979).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은 공동체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정립한다(구지윤·김유나 2016).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 연구가 존재한다. 주로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거나 영향요인들과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였으며,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의 변화궤적을 살펴본 소수의 연구 등이 있다.

우선, 영향요인의 영향을 고찰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또래 애착, 학교적응,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관련 요인과 공동체 의식이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가영·장유미(2013), 김삼미·남진열(2011)의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좋은 생활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오미섭(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관계와 공동체 의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공동체 의식의 변화궤적을 분석한 여러 연구는 그 양상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한다.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의 평균이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었지만(박영·허원구 2017; 오민아·조혜영 2017), 초기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박혜숙 2019). 또한 박현정 외(2015)의 연구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감소하다가 중3부터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정민·정혜원(2017)의 연구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 전환기(중3-고1)에 변화의 폭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공동체 의식에 관한 중단연구 대부분은 중·고등학교 시기를 주목했기 때문에 초

기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구정화(2015)의 경우, 5학년과 6학년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전반적인 공동체 의식 평균값은 물론 공동체 의식을 묻는 각각의 세부 하위 문항 전부에서 6학년 때의 응답값이 5학년 때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상욱 외(2018)의 연구에서는 초4~초6 동안 공동체 의식의 변화율이 부적임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생 시기의 공동체 의식이 증가한다는 변화패턴과 대조된다.

종합해보면, 공동체 의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하지 않으며 학교급이 전환되면서 그 변화 양상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초등학생 시기를 포함한 초기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을 종단적으로 살펴, 변화 양상과 이에 어떤 요인들이 크게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 적응(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의 관계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생이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교사 및 또래 등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학교 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박병선 외 2017). 즉 학교생활 적응은 학교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며,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 등의 하위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구지윤·김유나 2016). 학교는 청소년의 주요 활동무대이며 그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식과 사회적 책무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활동 속에서 청소년은 구성원으로서 정체성 및 역할을 형성해 가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은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상미·남진열(2011)은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과 발달 및 환경요인 간의 높은 상호관련성에 주목하며 학교에서의 활동 및 학교 환경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학교에서 맺는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기의 주요 사회적 관계로 볼 수 있으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우관계는, 청소년 시기는 또래가 행동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회적 발달의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이춘재 1988). 긍정적인 교우관계는 타인과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등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연

습할 기회를 제공하며 공동체 의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강가영 2014; 김위정 2012; 박수원·김셋별 2016). 교우관계는 공동체 의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구지윤·김유나 2016; 박경호·박희진 2016; 박현정 외 2015; 양심영 2018),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 중 교우관계가 가장 주요한 영향임을 보고하였다(박수원·김셋별 2016). 교사는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강경훈·최수미 2013),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또한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았다(강은영 2016; 김상미·남진열 2011; 박현정 외 2015).

학업은 청소년의 주요 과제이며 학습시간은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학교는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준법, 배려, 협동, 사회적 인성을 위한 교육도 제공하므로 청소년은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을 통해 올바른 사회규범과 가치, 지식 등을 학습할 수 있다. 학습활동과 공동체 의식의 관계를 연구한 김상미·남진열(2011)은 학업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 또한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학교에서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의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이상수·김은정 2016b). 규칙 준수 요인은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동체 문화의 한 형태이며(이상수·김은정 2016a), 공동체 의식과는 구분되지만 함께 공동체 역량을 구성하는 개별 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박경호·박희진 2016; 이상수·김은정 2016a). 학교규칙 준수는 학교 내에서 구성원이 상호 간에 신뢰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며(강은영 2017), 학교규칙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는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강가영 2014; 강은영 2017; 구지윤·김유나 2016).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가 단일 시점에서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 적응요인과의 관계를 탐색하였기에, 학년이나 학교급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생활 적응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소수의 연구(김태한 2017; 박현정 외 2015)에서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종단적 관계를 탐색하였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성상 1년 내내 같은 학급 친구 및 담임교사와 수업 및 체험활동 등의 학교생활 대부분을 함께하므로, 다음 학년도 학급이 달라짐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초등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기초적인 자기 역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는 배려 및 협동 등 개인의 인성적 차원에서 주목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중등교육은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

질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교육부 2009; 교육부 2015).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을 매해 시간 의존적 변수로 활용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공동체 의식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한 해의 학교생활 적응은 그해뿐만 아니라 그다음 해의 공동체 의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3에서 고1까지의 학교생활 적응과 공동체 의식의 구조적 관계를 고찰한 박수원·김셋별(2016)은 한 시점에서 맺는 긍정적인 교우관계나 교사관계가 다음 시점의 공동체 의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통제변수: 개인 및 가정 관련 요인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변화와 그에 관한 학교생활 적응의 동시 및 지연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개인 및 가정, 지역 관련 요인 중 공동체 의식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우선 성별의 경우, 성별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으나(박재숙 2010), 여학생의 공동체 의식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연구들이 많았다(박영·허원구 2017; 박현정 외 2015). 가정 관련 요인인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유정 2012), 부모의 양육 태도 또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원·김셋별 2016; 이유리 외 2018; 이기혜 외 2017). 지역과 관련해서 배은석·박해공(2016)은 대도시, 중·소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가장 높은 것을 밝히며 지역 규모에 따라 공동체 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연구자료로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2010) 중 ‘초4 코호트’의 1차 연도(2010)부터 6차 연도(2015)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 2010의 초4 코호트는 2010년 기준 초등학교

교 4학년 학생 중, 2009년 교육부 학교통계를 바탕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식으로 표집된 2,37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 학생 수에 비례하여 총 95개 조사대상 학교가 선정되었고, 학교별로 해당 학년의 1학급이 무작위로 추출되어 학급 학생 전체(약 15명~35명 내외)를 대상으로 조사가 시행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1차 연도 원표본은 남자 52.4%, 여자 47.6%로 구성되었다. 종단 조사의 특성상 조사 차수가 거듭될수록 질병, 사망, 전학, 응답 거부 등으로 자연스럽게 표본이탈이 나타나게 되는데, 시점별 표본 수와 원표본 유지율은 <표 1>과 같다. KCYPS 2010의 초4 코호트의 경우 6차 연도에 이르기까지 1차 연도의 원표본을 86.7% 정도로 유지하였다.

<표 1> 초4 코호트 자료의 시점별 표본 수와 원표본 유지율 (단위: 명, %)

	1차(2010)	2차(2011)	3차(2012)	4차(2013)	5차(2014)	6차(2015)
표본 수	2,378	2,264	2,219	2,092	2,070	2,061
원표본 유지율	100	95.2	93.3	88.0	87.1	86.7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은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혜원(2003)을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들이 초등학교 수준에 맞춰 문항을 변형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다(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각 문항의 내용과 신뢰도(coefficient alpha)는 <표 2>와 같다. 공동체 의식의 변화 양상은 공동체 의식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 공동체 의식 측정문항과 신뢰도

종속변수	문항	신뢰도
공동체 의식	1.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초4: 0.734
	2.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초5: 0.791 초6: 0.823
	3.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중1: 0.802 중2: 0.785
	4.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 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중3: 0.783

2)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 척도는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학교생활 적응 검사의 하위 요인인 학습활동(5문항), 학교규칙(5문항), 교우관계(5문항), 교사관계(5문항) 요인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각 영역에 대한 문항 내용과 신뢰도(coefficient alpha)는 <표 3>과 같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도가 높아지도록 응답값을 변환하였다. 학교생활 적응은 각 하위 영역 문항들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표 3> 학교생활 적응 측정문항과 신뢰도

독립변수	문항	신뢰도
학습활동	1.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초4: 0.699
	2.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초5: 0.715
	3.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초6: 0.719
	4.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중1: 0.782 중2: 0.763
	5.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역).	중3: 0.789
학교규칙	1.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초4: 0.752
	2.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초5: 0.784
	3.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초6: 0.811
	4.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중1: 0.824
	5.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중2: 0.794 중3: 0.810
교우관계	1.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초4: 0.627
	2.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초5: 0.615
	3.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초6: 0.565 중1: 0.612
	4.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역).	중2: 0.642
	5.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중3: 0.655
교사관계		초4: 0.841
	1.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초5: 0.860
	2.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초6: 0.891
	3.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중1: 0.850
	4.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중2: 0.844 중3: 0.871

3) 통제변수

성별은 원자료에서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여자를 0으로 변환하였으며, 1차 연도에서 남학생은 1,245명(52.4%), 여학생은 1,133명(47.6%)이었다. 가정배경 관련 변인으로 1차 연도 가구소득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활용하였다. 가구소득은 로그값으로 변환하였으며 부모의 양육방식은 1차 연도의 양육태도인 감독, 애정, 비일관성, 과잉 양육태도, 합리적 설명 등 총 2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문항을 활용한 것으로, coefficient alpha값은 차례로 .689, .820, .604, .783, .732이다. 원자료에서 지역을 17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지역 규모는 대도시(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중·소도시(세종시, 경기도), 그 외(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제주도)로 나누었고 그 외 지역을 참조기준으로 하여 더미코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분할함수 성장모형(Piecewise Growth Modeling)을 이용했다. 해당 모형은 잠재성장모형의 확장된 형태로, 성장모형의 함수에 질적으로 다른 기간 또는 단계를 구분하는 분할함수로 변화를 추정하는 모형이다(손수경 외 2017).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관심변인이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전과는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경우의 분석에 적합한 분석이다. 교육 연구에서는 특정 사건의 발생을 기점으로 기간의 구분이 의미가 있는 경우에 활용되며 상급학교로의 진급 전과 후, 특정 시험을 보기 전과 후 등이 좋은 예이다(김진호·홍세희 2012).

우선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기반인 잠재성장모형의 선형모형 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홍세희 2019).

$$Y_{it} = \pi_{0i} + \pi_{1i}Time_t + \epsilon_{ti} \quad (1)$$

$$\pi_{0i} = \beta_{00} + \gamma_{0i} \quad (2)$$

$$\pi_{1i} = \beta_{10} + \gamma_{1i} \quad (3)$$

Y_{it} 는 개인 i 의 시점 t 에서 측정된 관찰값(종속변수)이다. π_{0i} 는 초기값으로 $t=0$ 일 때의 값이고 π_{1i} 는 변화율을 의미하며, (2)의 β_{00}, γ_{0i} 는 초기값의 평균과 오차, (3)의 β_{10}, γ_{1i} 는 변화율의 평균과 오차이다. $Time_t$ 는 시간에 따른 요인계수이고 ϵ_{ti}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잠재성장모형을 행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요인 계수 행렬의 첫 번째 열은 초기값에 대한 요인계수이고 두 번째 열은 시점에 따른 변화율에 대한 요인계수를 나타낸다.

$$\begin{bmatrix} Y_{0i} \\ Y_{1i} \\ Y_{2i} \\ Y_{3i} \\ \vdots \\ Y_{ti} \end{bmatrix} = \begin{bmatrix} 1 & Time_0 \\ 1 & Time_1 \\ 1 & Time_2 \\ 1 & Time_3 \\ \vdots & \vdots \\ 1 & Time_t \end{bmatrix} \begin{bmatrix} \pi_{0i} \\ \pi_{1i} \end{bmatrix} + \begin{bmatrix} e_{0i} \\ e_{1i} \\ e_{2i} \\ e_{3i} \\ \vdots \\ e_{ti} \end{bmatrix}$$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이 일정하게 변화하지 않으며 학교급 전환기가 공동체 의식 변화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인 초등학교 6학년을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위 식을 확장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6년 동안의 공동체 의식 변화과정 중,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변화율이 달라진다고 보았을 때의 분할함수 수식은 다음과 같다(손수경 외 2017; Singer & Willett 2003).

$$Y_{ti} = \pi_{0i} + \pi_{1i}Primary_t + \pi_{2i}Middle_t + \epsilon_{ti} \tag{4}$$

$$\pi_{0i} = \beta_{00} + \gamma_{0i} \tag{5}$$

$$\pi_{1i} = \beta_{10} + \gamma_{1i} \tag{6}$$

$$\pi_{2i} = \beta_{20} + \gamma_{2i} \tag{7}$$

Y_{ti} 는 시점 t 에서의 학생 i 의 공동체 의식 값이며, π_{0i} 는 $t=0$ 일 때의 관찰된 값, 즉 공동체 의식의 초기값이고, π_{1i} 는 초등학교 시기 변화율, π_{2i} 는 중학교 시기 변화율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β_{00}, γ_{0i} 는 각각 초기값의 평균과 오차, β_{10}, γ_{1i} 는 초등학교 시기 변화율 평균과 오차, β_{20}, γ_{2i} 는 중학교 시기 변화율 평균과 오차를 의미한다. 6개 측정시기(초4~중3)를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요인계수 행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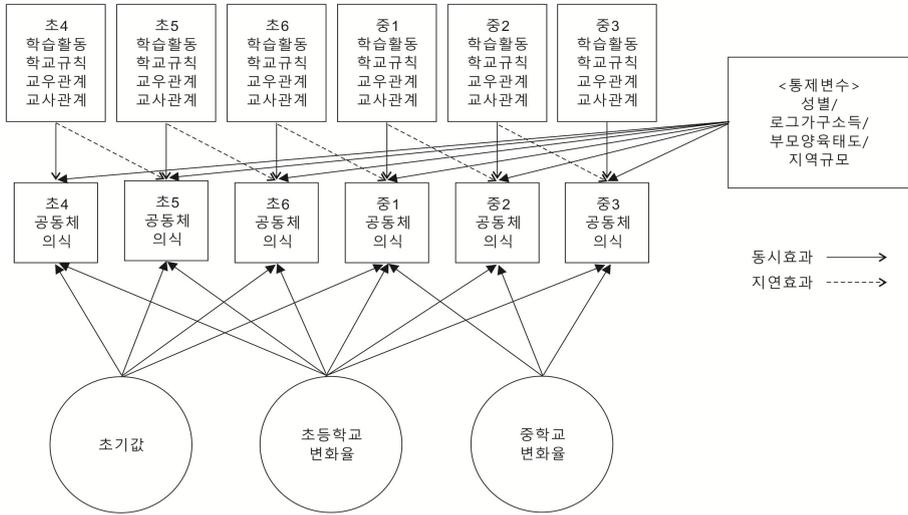
$$A = \begin{bmatrix} 1 & 0 & 0 \\ 1 & 1 & 0 \\ 1 & 2 & 0 \\ 1 & 2 & 1 \\ 1 & 2 & 2 \\ 1 & 2 & 3 \end{bmatrix}$$

행은 각 여섯 시점을 나타내며 첫 번째 열은 초기값에 대한 요인계수이고 두 번째 열은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에 대한 요인계수, 세 번째 열은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에 대한 요인계수를 나타낸다. 첫 번째 행부터 세 번째 행까지는 초등학교 시기이기 때문에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을 0으로 고정한다. 그 후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을 시간에 비례해 설정한다. 네 번째 행부터 여섯 번째 행까지는 중학교 시기로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을 고정한 채 이 시기의 변화율 계수를 시간에 비례하여 설정한다.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의 변화 양상이 분할함수 성장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동체 의식 변화궤적에 대해 무변화함수, 1차함수, 2차함수, 분할함수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Browne & Cudeck(1992)에 의하면 χ^2 검정은 표본이 커질수록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TLI, CFI, RMSEA를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 모형의 TLI와 CFI의 값이 대략 .90 이상이면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RMSEA의 값이 .05, .08 이하이면 각각 좋은 적합도(close fit), 적절한 적합도(reasonable fit)로 해석되며 합리적인 모형으로 받아들여진다(Browne & Cudeck 1992; 홍세희 2000).

최종적으로 학교생활 적응 각각의 하위 요인을 모형에 투입하여, 그들이 당해의 공동체 의식과 다음 해의 공동체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모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를 각 연도에 투입하여 면밀한 공동체 의식의 변화 양상과 학교생활 적응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최종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는 시각적인 간결함을 위해 학교생활 적응의 각 하위 요인을 분리하지 않았고, 오차항을 생략했다. 분석에는 AMOS 22, SPSS 22.0, Mplus 8.0을 사용했다. 결측 처리는 완전정보최대우도추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방식을 사용했다. FIML은 결측이 무작위로 발생한 경우(Missing At Random: MAR) 표본 크기가 충분하다면 비교적 비편향된 추정치를 추정한다는 시뮬레이션 연구가 있다(Enders & Bandalos 2001).



<그림 2> 최종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공동체 의식 평균은 초등학교 시기 약간 감소하다가 중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 시기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활용되는 자료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다변량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Mardia 다변량 정규성 검정 결과 정규성이 유의수준 .05에서 기각되었다($z=1626.2535$, $p < .001$). 하지만 다변량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최대우도법으로 추정된 모수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하였다(Hu et al. 199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들의 왜도는 절대값이 최대 1.070으로 2를 넘지 않았고, 첨도는 최대 절대값이 2.083으로 7을 넘지 않아 일변량 정규성이 허용되는 기준을 충족하였다(West et al. 1996).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는 다변량 정규성은 충족되지 않았으나 일변량 정규성을 만족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한 분석을 시행할 수 있었다.

<표 4> 주요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1																																							
2	.38	1																																						
3	.28	.37	1																																					
4	.27	.27	.37	1																																				
5	.24	.28	.33	.41	1																																			
6	.23	.26	.32	.36	.46	1																																		
7	.45	.30	.25	.17	.18	.20	1																																	
8	.29	.40	.28	.20	.20	.21	.49	1																																
9	.23	.27	.40	.20	.23	.22	.42	.48	1																															
10	.19	.22	.28	.40	.27	.26	.35	.37	.47	1																														
11	.18	.17	.26	.28	.41	.31	.33	.36	.41	.54	1																													
12	.18	.18	.26	.24	.30	.45	.33	.33	.40	.47	.60	1																												
13	.41	.26	.18	.14	.14	.14	.60	.37	.29	.23	.23	.24	1																											
14	.24	.42	.25	.17	.17	.17	.36	.61	.37	.29	.25	.24	.40	1																										
15	.15	.22	.44	.25	.21	.17	.25	.31	.57	.34	.27	.27	.28	.39	1																									
16	.17	.18	.27	.43	.27	.24	.19	.24	.29	.54	.35	.31	.19	.26	.37	1																								
17	.13	.13	.19	.23	.41	.28	.22	.24	.27	.31	.54	.39	.21	.25	.29	.38	1																							
18	.17	.17	.22	.22	.32	.48	.24	.23	.28	.29	.39	.57	.25	.24	.28	.34	.47	1																						
19	.47	.30	.26	.17	.21	.20	.60	.39	.31	.27	.27	.26	.53	.31	.20	.16	.16	.18	1																					
20	.32	.42	.27	.18	.21	.18	.40	.57	.35	.27	.28	.25	.32	.53	.24	.17	.18	.16	.48	1																				
21	.26	.29	.44	.26	.24	.21	.35	.34	.53	.31	.29	.25	.25	.29	.47	.22	.18	.18	.37	.44	1																			
22	.21	.23	.27	.45	.32	.28	.28	.28	.31	.52	.38	.33	.19	.22	.26	.55	.30	.22	.29	.33	.38	1																		
23	.19	.21	.26	.25	.48	.31	.25	.25	.31	.30	.51	.39	.16	.19	.23	.28	.44	.32	.29	.31	.35	.44	1																	
24	.19	.21	.26	.23	.33	.48	.27	.27	.29	.32	.39	.52	.19	.20	.22	.26	.29	.48	.28	.29	.29	.37	.51	1																
25	.43	.29	.23	.15	.17	.15	.52	.31	.26	.20	.22	.21	.47	.26	.15	.13	.15	.14	.48	.31	.25	.19	.19	.20	1															
26	.28	.39	.22	.17	.18	.18	.32	.53	.29	.22	.21	.19	.27	.49	.24	.17	.16	.14	.28	.48	.25	.19	.19	.21	.33	1														
27	.16	.26	.39	.20	.20	.19	.18	.26	.49	.25	.24	.24	.14	.26	.46	.21	.17	.16	.18	.24	.44	.21	.23	.23	.22	.29	1													
28	.17	.20	.25	.43	.27	.25	.19	.24	.25	.49	.34	.31	.13	.21	.28	.51	.25	.23	.15	.21	.23	.48	.27	.26	.18	.26	.29	1												
29	.15	.18	.21	.26	.42	.27	.16	.17	.20	.28	.46	.32	.12	.12	.17	.25	.41	.27	.19	.18	.18	.29	.49	.33	.20	.20	.28	.38	1											
30	.16	.18	.25	.25	.33	.49	.19	.20	.21	.28	.35	.48	.14	.15	.19	.23	.26	.45	.19	.18	.20	.25	.35	.52	.21	.21	.25	.35	.44	1										
31	.14	.12	.11	.07	.06	.07	.16	.19	.17	.14	.15	.17	.09	.08	.07	.09	.06	.08	.16	.06	.12	.10	.09	.10	.09	.12	.04	.06	.07	.05	1									
32	.35	.22	.17	.13	.15	.13	.38	.30	.24	.19	.18	.19	.30	.22	.14	.14	.14	.13	.37	.27	.21	.18	.19	.17	.29	.23	.14	.13	.13	.16	.12	1								
33	.43	.26	.21	.19	.20	.18	.42	.29	.27	.24	.20	.21	.33	.21	.18	.16	.13	.13	.45	.32	.29	.26	.24	.21	.39	.26	.19	.19	.20	.20	.12	.49	1							
34	-.03	-.05	-.05	.01	-.02	-.01	-.15	-.17	-.14	-.09	-.08	-.10	-.07	-.10	-.06	-.04	-.05	-.07	-.11	-.11	-.08	-.06	-.05	-.06	-.07	-.05	-.02	-.01	-.03	-.02	-.06	-.04	-.14	1						
35	.05	.03	-.02	.03	-.03	.00	-.14	-.13	-.13	-.09	-.07	-.06	-.03	-.06	-.05	-.03	-.05	-.04	-.09	-.09	-.07	-.05	-.05	-.06	-.03	-.04	-.03	-.01	-.02	-.01	-.04	.00	-.13	.62	1					
36	.38	.21	.16	.15	.15	.13	.30	.19	.20	.16	.14	.15	.26	.15	.12	.11	.09	.10	.34	.23	.21	.18	.20	.16	.32	.23	.16	.15	.15	.14	.08	.39	.63	-.08	-.03	1				
M	2.96	2.99	2.87	3.00	2.96	3.01	3.04	2.98	2.93	2.87	2.84	2.87	3.10	3.02	2.98	3.01	2.92	3.02	3.08	3.10	3.11	3.12	3.14	3.15	3.15	3.15	3.08	2.98	2.99	3.03	3.57	3.36	3.30	2.49	2.48	3.16				
SD	0.62	0.63	0.64	0.58	0.54	0.53	0.50	0.53	0.52	0.56	0.52	0.54	0.50	0.54	0.55	0.54	0.52	0.51	0.48	0.47	0.44	0.42	0.41	0.40	0.63	0.64	0.69	0.64	0.62	0.60	0.26	0.63	0.64	0.77	0.63	0.68				

주: (1-6: 공동체 의식(초4-중3), 7-12: 학습활동(초4-중3), 13-18: 학교규칙(초4-중3), 19-24: 교우관계(초4-중3), 25-30: 교사관계(초4-중3), 31:로그가구소득, 32-26: 부모양육태도(감독, 애정, 비일관성, 과잉양육, 합리적 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상관값은 굵게 표시하였음).

2. 공동체 의식 변화 분석모형의 비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초기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 변화에서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변화 모형, 선형 모형, 이차함수 모형, 분할함수 모형의 변화함수를 차례로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공동체 의식의 변화 분석모형 비교

Model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	323.717	19	.855	.869	.082
선형함수	170.447	16	.913	.933	.064
이차함수	124.405	12	.915	.952	.063
분할함수	101.576	12	.932	.961	.056
비연속 분할함수	65.508	7	.946	.970	.059

선형과 이차함수 모형은 분할함수 모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적합도를 보였다. 일반 분할함수와 달리 분기점에서 임의의(random) 초기값을 추정하는 비연속 분할함수의 경우 TLI와 CFI 값에서는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여주었지만, RMSEA 값에서는 일반 분할함수가 더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CFI의 차이가 .01보다 작으면 두 모형의 적합도는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는 Cheung & Rensvold (2002)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모형의 간명성과 해석 가능성까지 고려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을 분기점으로 하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최종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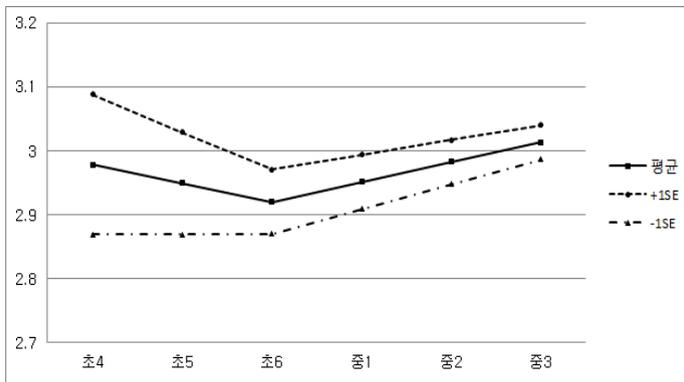
분할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 공동체 의식의 초기값과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은 모두 유의하였으며, <표 6>에 제시하였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의 굵은 실선과 같다.

<표 6> 모형 추정치

	I(초기값)		S1(변화율)		S2(변화율)		I-S1의 공분산	I-S2의 공분산	S1-S2의 공분산
	평균	표준 오차	평균	표준 오차	평균	표준 오차			
공동체 의식	2.979***	0.012***	-0.029***	0.007***	0.031***	0.005***	-0.039***	-0.012***	-0.003

주: * $p < .05$, ** $p < .01$, *** $p < .001$

공동체 의식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감소하다가 중학교 시기에는 점차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값(I)과 초등학교 시기 변화율(S1)의 공분산, 초기값(I)과 중학교 시기 변화율(S2)의 공분산은 모두 부적으로 나타나, 초기값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시기의 공동체 의식은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시기의 공동체 의식은 덜 빠르게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값이 이미 높은 경우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향상 폭이 더 작게 나타나는 것은 종단 연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다(손수경 외 2017).



<그림 2> 분할함수모형을 적용한 공동체 의식 추정 변화궤적

그러나 공분산이 부적이라고 해서 자료의 전체 시점에서 초기값이 낮은 청소년이 초기값이 높은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그림 2>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변화궤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연도인 초등학교 4학년 때 또래 공동체 의식 평균보다 1표준편차(1SE) 더 높은 응답자의 경우, 평균 변화궤적보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더 급격하게 감소하고, 중학교 시기에는 더 천천히 증가한다. 그러나 전체 조사 시기를 통틀어 공동체 의식 추정치가 역전하지는 않는다. 즉 초기값이 높은 청소년은 변동이 있더라도 대체로 또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반대로 초기값이 1 표준편차 낮은 청소년도 대체로 또래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3.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 적응

공동체 의식에 관한 학교생활 적응의 동시 및 지연효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 의존적 독립변수를 투입하고 통제변수로 개인 및 가정배경, 지역 관련 변인을 추가한 조건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할함수 조건모형의 적합도는 <표 7>과 같이 TLI가 .963, CFI가 .980, 그리고 RMSEA가 .022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조건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209.068	112	.963	.980	.022

1)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 적응 동시효과

학교생활 적응이 동일 시기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동시효과 영향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각 시점에서의 학교생활 적응은 당해의 공동체 의식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그리고 교사관계에서 높은 학교생활 적응을 보이는 학생일수록 각 시점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비교해보면, 학습활동의 경우 그 영향이 비교적 중학교 시기(.138, .087, .168)에서 크게 나타났고, 학교규칙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의 영향(.108, .199, .252)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는 중학교 시기의 동시효과 계수가 .187, .243, .179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보다 크게 나타났다. 교사관계 또한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중학교 시기(.174, .134, .178)에 그 영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 적응 지연효과

다음으로, 초기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의 유의한 지연효과는 <표 9>와 같다. 지연효과는 동시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과거 학교생활 적응이 그 다음 시기의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줄을 뜻한다. 모든 경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학교생활 적응의 동시효과에 비해 지연효과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이전 시점의 학교생활 적응은 학교급 전환기의 공동체 의식에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습활동은 중학교 1학년 때 공동체 의식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 학교규칙과 교우관계는 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교규칙과 교우관계에 대한 적응이 좋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연효과 외에 초등학교 4학년의 교사관계와 초등학교 5학년의 교우관계가 다음 시점의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중학교 시기에는 지연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8> 초기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의 동시효과 추정경로계수

학교생활 적응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학습활동	초4 학습활동 → 초4 공동체 의식	0.136 ^{***}	0.034	0.108
	초5 학습활동 → 초5 공동체 의식	0.085 [*]	0.034	0.071
	초6 학습활동 → 초6 공동체 의식	0.096 ^{**}	0.034	0.081
	중1 학습활동 → 중1 공동체 의식	0.139 ^{***}	0.027	0.138
	중2 학습활동 → 중2 공동체 의식	0.090 ^{**}	0.028	0.087
	중3 학습활동 → 중3 공동체 의식	0.159 ^{***}	0.026	0.168
학교규칙	초4 학교규칙 → 초4 공동체 의식	0.135 ^{**}	0.031	0.108
	초5 학교규칙 → 초5 공동체 의식	0.231 ^{***}	0.031	0.199
	초6 학교규칙 → 초6 공동체 의식	0.283 ^{***}	0.029	0.252
	중1 학교규칙 → 중1 공동체 의식	0.119 ^{***}	0.027	0.114
	중2 학교규칙 → 중2 공동체 의식	0.179 ^{***}	0.025	0.171
	중3 학교규칙 → 중3 공동체 의식	0.177 ^{***}	0.025	0.176
교우관계	초4 교우관계 → 초4 공동체 의식	0.198 ^{**}	0.033	0.154
	초5 교우관계 → 초5 공동체 의식	0.195 ^{***}	0.035	0.146
	초6 교우관계 → 초6 공동체 의식	0.209 ^{***}	0.036	0.148
	중1 교우관계 → 중1 공동체 의식	0.250 ^{***}	0.033	0.187
	중2 교우관계 → 중2 공동체 의식	0.323 ^{***}	0.033	0.243
	중3 교우관계 → 중3 공동체 의식	0.228 ^{***}	0.032	0.179
교사관계	초4 교사관계 → 초4 공동체 의식	0.123 ^{***}	0.023	0.125
	초5 교사관계 → 초5 공동체 의식	0.116 ^{***}	0.024	0.118
	초6 교사관계 → 초6 공동체 의식	0.109 ^{***}	0.021	0.122
	중1 교사관계 → 중1 공동체 의식	0.154 ^{***}	0.021	0.174
	중2 교사관계 → 중2 공동체 의식	0.116 ^{***}	0.020	0.134
	중3 교사관계 → 중3 공동체 의식	0.153 ^{***}	0.021	0.178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초기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의 지연효과 추정경로계수

학교생활 적응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지연효과	초4교사관계 → 초5공동체 의식	0.066**	0.025	0.067
	초5교우관계 → 초6공동체 의식	0.072*	0.035	0.054
	초6학습활동 → 중1공동체 의식	-0.064*	0.030	-0.060
	초6학교규칙 → 중1공동체 의식	0.061*	0.026	0.062
	초6교우관계 → 중1공동체 의식	0.103**	0.031	0.081

주: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의 변화궤적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를 구분한 분할함수 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 요인을 시간 의존적 변수로 추가적인 통제변수와 함께 투입하여 학교생활 적응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할함수 성장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에 중학교 3학년에 이르는 초기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의 변화궤적은 비선형적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을 기점으로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과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약간 감소하다가 중학교 시기에는 점차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공동체 의식 성장궤적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이 연구되지 않아 선행연구와의 일치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중학교 시기의 공동체 의식 향상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희정 2016; 박영·허원구 2017; 장희선·이재덕 2018). 이와 같은 차이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교육과정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모든 교과는 학생의 성장 발달 정도와 사회·문화적 경험을 고려하여 학교급별로 주안점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사회과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의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관하여 관심과 흥미를 느끼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습득한 지식을 발견,

적용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궁극적으로는 공동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정신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2009; 교육부 2015). 이에 따라 발달과정 및 교육과정에 따라 능동적인 참여와 실천의식이 바탕이 되는 공동체 의식 발달은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중학교 시기에 상승하는 변화궤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하락의 경우, 몇몇 실증연구에서 ‘시민성 지체현상’으로 간주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수업과정에서의 시민성 관련 수업 부족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구정화 2015; 서재천 2011). 구정화(2015)에 따르면, 초등교육과정상 시민성과 관련된 수업은 4학년, 6학년 시기에만 이루어지고, 6학년 교과서를 살펴보면 4학년 시기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나 직접적으로 다루는 단원의 배치는 적은 편이었다. 반면, 중학교교육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 통합되었던 사회과목을 도덕, 사회, 역사 등으로 세분화하였기 때문에 시민성과 관련된 수업에 집중도가 더욱 높아진다. 중학교 시기에 높아지는 공동체 의식 수준과 고려하였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사회과목 학습단원을 개편하거나 혹은 6학년의 공동체 의식 관련 내용 확대 등의 교육과정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습득할 기회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시기에 본격적인 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한다면 보다 향상된 초기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시점에서의 학교생활 적응은 동일한 시점의 공동체 의식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경우, 그 영향이 중학교 시기에 비교적 크게 나타났고, 학교규칙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의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적응 관련 요인이 다르며 이에 따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양상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범을 지키는 행동이 곧 높은 공동체 의식과 직결되지만, 중학교 시기에는 자신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과의 사회적 관계가 의식 형성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셋째, 학교생활 적응의 지연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른 시기에 비해 초등학교 6학년 학교생활 적응의 지연효과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규칙을 잘 따르고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중학교 1학년 때의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초등학교에서의 긍정적인 적응이 다음 학년을 넘어 중학교 시기의 공동체 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송연주 외(2015)가 초등

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이 시기에 청소년의 또래 애착, 학교생활 적응과 공동체 의식 사이에 정적 상관이라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아울러, 중학생 시기에 또래의 영향이 커지는 만큼, 6학년 시기의 긍정적인 교우관계가 공동체 의식 형성에 중요한 사회적 과업임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공동체 의식 증진을 위한 교과목과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이후 중학교 시기에도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습활동에 잘 적응을 한 학생일수록 중학교 1학년 때 낮은 공동체 의식을 보고한 것은 기존 연구 결과와 일부 대치된다. 이는 중학교 입학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입시경쟁 및 학업스트레스와 관련 있을 수 있다. 이기혜 외(2017)는 중학교 시기에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공동체 의식을 매개하여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낮아지는 부적 관계를 낳는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 학업수준이 높았던 학생일수록 중학생이 되면서 그 부담감이 더 커지고 그로 인해 학업스트레스가 심해져 공동체 의식을 낮게 보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명료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 외 지연효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의 교사관계와 초등학교 5학년의 교우관계는 다음 시점의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중학교 시기에는 학교생활 적응의 지연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두드러지는 학교생활 적응 효과는, 학교 환경의 변화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학교급 전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교생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환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생활이 영향을 미치는 양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살펴 학교급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정책을 세워야 한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개인의 공동체 의식은 시기적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된 시기에 영향력이 컸던 사회적 이슈나 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시기(2010~2015)에 따른 코호트 교유의 특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른 시기 코호트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연구자료로 패널 자료를 활용한 데 한계가 있다. 우선 통제변수로 사용된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매회 조사되지 않아 1차 연도의 값

만을 사용했다. 심리적으로는 본격적인 사춘기, 사회적으로는 입시문제 등으로 인해 중학생 시기는 초등생 시기와는 다른 부모의 양육태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통제를 위해서는 매해 부모의 양육 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이 다소 광범위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패널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4 개 문항만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패널 자료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표집을 통해 구성되어 표본의 대표성이 높고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초기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라 공동체 의식의 성장궤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학교급 전환기가 공동체 의식 변화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교급 전환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시기에 학생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그들이 갖추고 있는 사회적 역량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통제하여, 학교생활 적응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학교생활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다양한 학교생활 경험이 중학교 때의 공동체 의식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적인 공동체 의식 교육방향과 이에 맞는 교육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이론 및 실천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강가영·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 강가영. 2014. “학교생활적응이 아동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8(1): 81-110.
- 강경훈·최수미. 2013. “청소년의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가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4): 55-85.

- 강상욱·김인우·권성호. 2018. “초등학생의 운동시간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체 의식의 종단매개효과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9(4): 27-37.
- 강은영. 2016. “교사의 생활지도 태도가 청소년의 학교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48(4): 1-26.
- 강은영. 2017. “청소년의 학교규칙 신뢰감이 학교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법교육연구》 12(1): 1-22.
- 강현주·신인순. 2015. “청소년 체험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9): 25-48.
- 고관우·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곽수란. 2017. “아동·청소년기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 결정요인: 학업성취 맥락에서.” 《청소년학연구》 44(4): 5-28.
- 교육부. 2009. 《2009년 개정교육과정 총론》.
- 교육부. 2015. 《2015년 개정교육과정 확정 발표》.
- 구정화. 2015.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초등학교 5, 6학년의 차이 연구.” 《시민교육연구》 47(1): 1-24.
- 구지윤·김유나. 2016. “청소년 체험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8): 287-309.
- 김광복·남진. 2005. “주택재개발 아파트의 단지배치특성에 따른 임대주택거주자의 커뮤니티의식 분석”. 《국토계획》 40(7): 73-86.
- 김상미·남진열. 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삶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25-242.
- 김선숙·안재진.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39-363.
- 김위정. 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22.
-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김진호·홍세희. 2012. “분할합수 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 불안의 변화 추정과 생태학적 영향 요인의 검증.” 《교육방법연구》 24(2): 405-425.
- 김태한. 2017.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확장된 공동체에 대한 이타적 목표의식에 미치는 효과.” 《교육사회학연구》 27(1): 31-53.
- 김혜진. 2014.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유형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8: 195- 214.

- 박경호·박희진. 2016. “초등학생의 공동체 역량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미래교육연구》 6(3): 69-95.
- 박수원·김셋별.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 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5-32.
- 박영·허원구. 2017.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발달궤적 및 예측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8): 131-156.
- 박병선·배성우·박경진·서미경·김혜지. 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보건사회연구》 37(2): 72-101.
-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박현정·김전옥·손윤희. 2015.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6(4): 105-127.
- 박혜숙. 2019. “공동체 의식 변화 양상과 개인, 가정, 학교특성이 아동·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5(1): 555-576.
- 배은석·박해궁. 2016.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8(1): 173-199.
- 서봉언·조현미·김민영. 2015.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 관련 요인 탐색.” 《다문화콘텐츠연구》 19(1): 179-207.
- 서재천. 2011. “초등학생의 시민성 발달 조사 연구”. 《사회과교육》 50(4): 205-216.
- 손수경·이현정·홍세희. 2017. “학교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8(3): 57-88.
- 송연주·김대현·이상수. 2015. “전환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3(2): 207-231.
- 양심영. 2018.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 경험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문화기술의 융합》 4(4): 241-247.
- 오미섭. 2013.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1(3): 111-130.
- 오민아·조혜영.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동체 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1): 125-137.
- 위유라·노충래. 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이기혜·방수민·이은혜. 2017.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학업성취수준 및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7(4): 105-135.
- 이봉주·민원홍·김정은. 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 이상수·김은정. 2016a. “따뜻한 교육공동체 역량 탐색.” 《교육과학연구》 47(2): 105-132.
- 이상수·김은정. 2016b. “중등학교 따뜻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요구분석.” 《교육방법연구》 28(2): 281-305.
- 이유리·박은정·이성훈. 2018.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자녀의 개인내적, 학교생활, 지역공동체 의식의 차이-초 4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21-40.
- 이정민·정혜원.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변화와 체험활동의 시간효과.” 《중등교육연구》 65(3): 573-599.
- 이정민·정혜원. 2017.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초기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유형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교육방법연구》 29: 257-283.
- 이정은·조미형. 2007.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3): 79-102.
- 이춘재. 1988. “한국청소년의 신장성장의 유형 변화: 1964년에서 1986년까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 48-62.
- 이혜영. 1993. “공동체적 사회연대 구축을 위한 품성교육의 방향.” 《교육사회학연구》 3(2): 113-134.
- 이희정. 2016. “도시청소년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궤적과 설명 변인 탐색.” 《도시인문학연구》 8(2): 97-125.
- 장희선·이재덕. 2018.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변화에 미치는 교사 성취압력의 영향력.” 《교육문화연구》 24(5): 399-424.
- 성희자·전보경. 2006. “농촌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7(4): 149-170.
- 한대동·오경희. 2013. “초등학교에서의 공동체적 수업실천과 공동체 의식이 학교폭력 자체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3(4): 207-235.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 유저 가이드》.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19. 《변화분석을 위한 잠재성장모형》. 서울: 박영사.
- 황여정. 2018. “청소년의 체험활동 경험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누적적 경험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4(2): 195-221.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Cheung, G.W. and R.B. Rensvold.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Curran, P.J., S.G. West, and J.F. Finch.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Duncan, T.E. and S.C. Duncan. 2004. "An Introduction to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Behavior Therapy* 35(2): 333-363.
- Enders, C.K. and D.L. Bandalos. 2001. "The Relative Performance of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or Missing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8(3): 430-457.
- Gusfield, J.R. 1975. *Community: A Critical Response*. New York: Harper & Row.
- Hu, L.T., P.M. Bentler, and Y. Kano. 1992. "Can Test Statistics in Covariance-structure Analysis be Trusted?." *Psychological Bulletin* 112(2): 351-362.
- Lerner, R.M. and D.R. Castellino. 2002. "Contemporary Developmental Theory and Adolescence: Developmental Systems and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1(6): 122-135.
- MacIver, R.M. 1970. *On Community, Society and Power: Selected Writings* (1st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Millan, D.W. and D.M. Chavis.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Browne, M.W. and R. Cudeck.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Sarason, S.B. 1974.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rospects for a Community Psychology*. Jossey-Bass.
- Singer, J.D. and J.B. Willett. 2003. *Applied Longitudinal Data Analysis: Modeling Change and Event Occurr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iecewise Growth Modeling of Early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and the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Soyoung Ahn
Hyunwoo Shin
Cheong-ah Lee
Sehee H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changes in the sense of community of early Korean adolescents and examine the contemporaneous and lagged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on the changes. We applied the piecewise growth modeling to the data to analyze discontinuous changes. The results showed that piecewise growth function was most adequate to explain the changes of sense of community in early Korean adolescence in terms of the goodness of fit. Early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appeared to decrease during the elementary school years, however, it increased during the middle school years. Also, the contemporaneous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on the sense of community were positively significant over the 6-time points. Additionally, the significant lagged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remarkably appeared at the point of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In short,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discontinuous trajectory of the sense of community in early adolescence and indicated that the experience of school adjustment in 6th grade affects the sense of community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The further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sense of community, school adjustment, piecewise growth model, time-varying covariate, lagged effects